파이 자르기

형제가 파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.

둘 다 큰 것을 먹겠다고 서로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르겠다는 싸움이었습니다.

형이 칼을 가지고 자기 몫을 크게 자르려고 하였습니다.

이때 아버지가 들어 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.

그리고 말했습니다.

“잠깐! 아버지 말을 들어보아라. 누가 잘라도 괜찮다. 그러나 한 사람이 자르면 나머지 사람이 먼저 잡는 것이다.”

이 말을 듣고 형은 정확하게 반을 잘랐습니다.